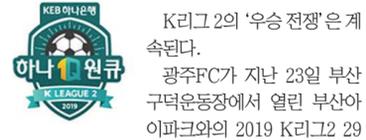


제동 걸린 광주 FC... 더 쫓깃해진 승격 전쟁

부산에 2-3 석패... 승점 5점차 시즌 남은 7경기 명승부 예고 전남, 아산에 6경기만에 패배



K리그 2의 '우승 전쟁'은 계속된다. 광주FC가 지난 23일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부산아이파크와의 2019 K리그2 2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3패를 기록했다.

시즌 3패째를 기록한 광주는 16승 10무 3패(승점 58)가 되면서 14승 11무 4패(승점 53)의 부산에 승점 5점 차로 바짝 쫓기게 됐다.

올 시즌 두 팀의 맞대결은 1승 3무를 거둔 부산의 판정승으로 끝나게 됐다.

광주는 어렵게 승리는 했지만 '빅매치'다운 멋진 경기를 펼치면서 박수를 받았다. 전반은 부산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전반 18분 부산 호물리가 프리킥 골로 광주의 골대를 갈랐고, 전반 26분에는 박종우의 프리킥을 넘겨받은 이동준의 헤더가 적중했다.

이어진 광주의 공격 상황에서는 아쉬운 비디오 판독(VAR)이 나왔다. 전반 27분 페널티박스 안에서 하정우가 원발슛을 날리며 세 경기 연속 골에 성공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공이 연결되기 전 프리킥 상황에서 광주의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골이 인정되지 않았다.

전반전이 0-2로 끝날 때만 해도 부산이 앞선 3무의 아쉬움을 달래는 것 같았다.

부산은 앞선 세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선제골을 넣고도 승리가 아닌 3무만 기록했다. 광주는 반면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펠리페의 골과 후반 42분 터진 이응범의 환상적인 프리킥 등으로 승리 같은 3무를 기록했다.

광주의 대졸 루키 김주공이 12경기 만에 프로 데뷔골을 터트리면서 경기장 분위기를 바꿨다.

후반 9분 최준혁의 패스를 받은 김주공이 오른 발 터닝슛으로 광주의 추격을 알렸다. 후반 18분에는 김주공이 도움을 기록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찢러 준 공을 페널티 박스에서 대기하고 있던 윌리안이 받아 동점골로 연결했다.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갔고 다시 한번 광주가 부산의 승리를 뺏아채는 것 같았다.

하지만 후반 22분 이동준의 원발이 승부추를 부산으로 기울였다.

광주는 후반 추가 시간까지 몇 차례 예리한 공격으로 부산의 골대를 두드렸지만 끝내 추가골을 넣지 못했다. 승점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광주는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팬들을 환호케 하는 공세를 펼치면서 명승부를 만들었다. 이 경기로 1위 광주와 2위 부산의 승점이 5점 차로 좁혀지면서 올 시즌 남은 7경기에서 승 따는 '우승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6경기 연속 무패행진에 도전했던 전남 드래곤즈는 아산 원정에서 후반 31분 아산 최요섭에게 골을 허용하면서 0-1로 졌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를 기록했던 전남은 골 침묵으로 6경기만에 패배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FC의 윌리안(오른쪽)이 지난 23일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2019 K리그2 29라운드 부산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시, 광주 FC 운영비 지원 3년 연장...매각 방침은 유지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매각 추진 비판 목소리

광주시가 시민 구단인 광주FC의 운영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되 매각은 추진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주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축구단 운영비 지원기간을 2019년 12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3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시한부 연장이다.

광주FC 창단 이후 2011년부터 매년 지원하는 운영비 60억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광주시는 덧붙였다. 광주FC는 시의 지원, 후원, 선

수 매각 등으로 80억원을 마련해 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원 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구단 매각 방침은 유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자체로서 구단 운영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지역 중견 기업 등을 대상으로 광주FC를 매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영비가 100억원에 이르는 축구단을 매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매각 추진에 축구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시의 지원 규모는 전국의 사·도민 구단 10곳 가운데 7번째로 그리 많은 편이 아니어서 지원액이 부담돼 매각을 추진한다는 시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1부 리그로 승격할 경우 운영비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점도 부담이다. 창단 2년 만인 2012년 2부 리그로 강등된 광주FC는 선수단의 고군분투로 2015년 1부 승격을 이뤄냈지만, 선수를 팔아 근근이 버티다가 2017년 다시 2부로 추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운영비가 없어 선수를 팔고 선수가 없으니 성적이 추락하고, 1부 리그로 승격하지 못하니 후원이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지역 축구계는 지자체, 시민, 기업이 뿔뿔 뿔쳐

축구 붐이 이뤄낸 대구의 사례처럼 현실성 없는 매각 추진이 아닌, 지역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으로 광주FC가 진정한 시민 축구단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광주시의 이런 '홀대'가 배구단 유치 노력과 대비된다는 불만도 나온다.

광주시는 한전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있다는 이유로 한전 여자 배구단 유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배구단도 광주시 지원이 결국 필요하다는 점에서 광주FC를 매각하려는 시도와 비교가 된다는 말이 나온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시작은 아쉬움...마지막엔 희망 찬가 올렸다



KIA 임기영, 최종전 6이닝 1실점...3경기 연속 QS 첫 등판 대량 실점·엔트리 말소·복귀 등 기록 최근 스피드·체인지업 위력 살아나며 자신감 회복

아쉬움으로 시작해 희망을 남긴 KIA 타이거즈 임기영의 2019시즌이다.

임기영은 지난 23일 KT위즈와의 원정경기를 통해서 올 시즌 마지막 등판을 끝냈다. 임기영의 최종전 성적은 6이닝 7피안타 2볼넷 2탈삼진 1실점.

경기가 1-2패로 끝나면서 승리투수는 되지 못했지만 세 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로 시즌을 잘 마무리했다.

끝은 좋았지만 임기영이 돌아본 2019시즌은 '아쉬움'이다.

3월 26일 한화와의 시즌 첫 등판에서 4이닝 8실점을 기록한 임기영은 3월 30일 요구리 부상으로 바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임기영은 "올 시즌을 생각하면 많이 아쉽다. 최근 세 경기는 좋았는데 초반부터 좋았으면 괜찮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다"며 "캠프 가서 생각한 것이 시작하자마자 틀어져 버렸다. 캠프 때 아프

지 않고 하는 것과 10승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경기 만에 다 끝나버렸다. 생각도 많아지고 멘탈도 많이 힘들었다"고 돌아봤다.

열심히 새 시즌을 준비했지만 첫 출발부터 준비한 목표가 무산됐고, 이후 복귀 과정도 쉽지 않았다. 6월 28일 KT전 구원 등판까지 임기영은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다.

임기영은 "세 달 2군에 있으면서 좋았다 나뉘다가 반복됐다. 이전에 갖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기록이 너무 심했다. 이게 너무 심하니까 올해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했다. 2군에서 6이닝을 던지고 기록이 나와도 던지고 느낄 때 예전의 느낌이 아니었다"며 "감독님, 코치님께서 계속 잡아주시고 좋은 이야기해 주셔서 거기서 버텼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직구 스피드와 체인지업 움직임 찾으면서 임기영은 마지막 세 경기에서 희망을 던졌다. 이 세 경기를 통해 자신감을 찾은 것도 큰 소득이다.

임기영은 "직구 스피드가 초반보다 많이 올라오고 체인지업도 많이 좋아졌다"며 "롯데전 6이닝 던지고 두산과 할 때도 초반에 안 좋았는데 그 이후로 괜찮았다. 6이닝 3실점 하면서 내 공을 많이 믿었던 것 같다. KT와 던질 때 올 시즌 마지막이어서 볼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더 공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 "초반에 안 좋았던 게 작년 모습이었다. 작년에 스피드가 너무 안 나오고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1-2점 주고 2-3개 맞아버리면 지고 들어가게 됐다"며 "지금 좋은 것을 바탕으로 다시 경쟁해야 한다. 군제대 선수들도 있고 처음부터 경쟁한다는 마음이다. 항상 이겨야 한다"고 새로운 경쟁을 이야기했다.

임기영은 욕심은 버리고 '유지'를 목표로 새 시즌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생각이다.

임기영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좋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유지해서 끌고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다. 더 욕심내면 다 무너질 수 있다"며 "지금 좋은 것을 바탕으로 다시 경쟁해야 한다. 군제대 선수들도 있고 처음부터 경쟁한다는 마음이다. 항상 이겨야 한다"고 새로운 경쟁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김기태 전 감독 '석별의 정'

캠핑장에서 송별 행사

KIA 타이거즈가 24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 앞서서 김기태 전 감독 송별 행사를 가졌다. <사진>

행사는 선수단 메시지와 팬 감사 메시지 상영으로 시작됐으며, 선수단 대표로 양현종과 안치홍이 김 전 감독에게 유니폼 액자를 전달했다.

이화원 대표이사도 행운의 열쇠를 선물하면서 김 전 감독의 공을 기렸다. 또 광주주고 후배들도 경기장을 찾아 왔다 발을 전담했다.

김 전 감독은 "대표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선수단, 그동안 사랑해주고 많이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KIA 타이거즈의 앞날에도 무궁한 영광이 있길 응원하겠습니다"라며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키움 선수단 여러분도 시즌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작별 인사를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

